

신사

일본의 마음



신과 신사



“신사”란 신성한 공간을 의미하며, 하나 또는 여러 신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일상을 초월한 많은 신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며, 이것이 신의 본질입니다. 각각의 신사는 서로 다른 신을 모시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둘 이상의 신을 동시에 모시기도 합니다. 둘 이상의 신을 모시는 여러 신사를 보면, 신의 조합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도 많이 있지만, 신사별로 그 신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신 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본 고대 신화의 등장인물이나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이나 강처럼 자연과 관련된 신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는 천년 이상 전에 세워졌으며, 최근에도 새로운 신사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사는 주기적으로 신주가 신에게 “마쓰리(祭, matsuri)”라는 제사를 올리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제사에 참가하기 위해 신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소원을 빌거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원이나 감사 이외에도 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는 국적, 연령, 성별, 인종 또는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이 있는 곳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대부분 신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신이 모셔져 있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신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사에서 신이 모셔져 있는 건물을 “혼텐(本殿, honden)”이라고 합니다. 일부 신사에서는 신이 언덕, 산, 섬, 폭포 또는 경내에 있는 숲에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모시는 신이 다양한 만큼 신사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안내책자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모든 신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신사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참배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신사를 방문했을 때, 그 신사의 참배 방법이 이 책자의 설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신사가 정한 참배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오랜 전통의 신도

먼 옛날 일본열도 사람들은 자신들 주변의 자연에서 신을 보았고, 이 신에 대한 신앙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쌀농사와 어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자연의 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지진, 홍수, 전염병, 태풍, 화산폭발 등과 같은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양면성에서 신의 존재를 보았고, 신이 깃든 장소로서 산, 큰 바위, 나무, 폭포 또는 자연현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장소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신으로 숭배했고, 나중에는 공동체에 큰 공헌을 한 위인들 또한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과는 달리 신도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신도는 일본인이 자연 및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유기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신에 대한 숭배는 쌀농사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제사 또는 축제에 해당하는 마쓰리의 형태로 자리 잡았고, 마쓰리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풍년을 기원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건강을 기원합니다. 가을에는 수확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마쓰리는 지역사회의 주요 행사이며 많은 사람들이 마쓰리를 축하하기 위해 의식이 열리는 신사 경내에 모입니다. 때때로 신은 “미코시(神輿, mikoshi)”라는 가마로 옮겨져 사람들의 긴 행렬과 함께 지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미코시를 어깨에 멘 사람들의 힘찬 함성과 다양한 볼거리가 축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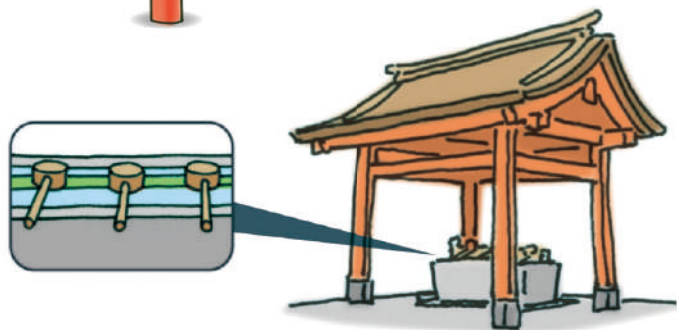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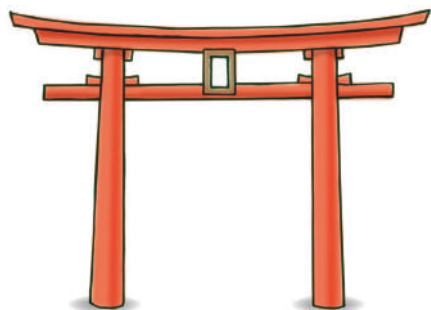


신사에 들어가기

신사와 그 경내는 신이 거주하는 집과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가정을 방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신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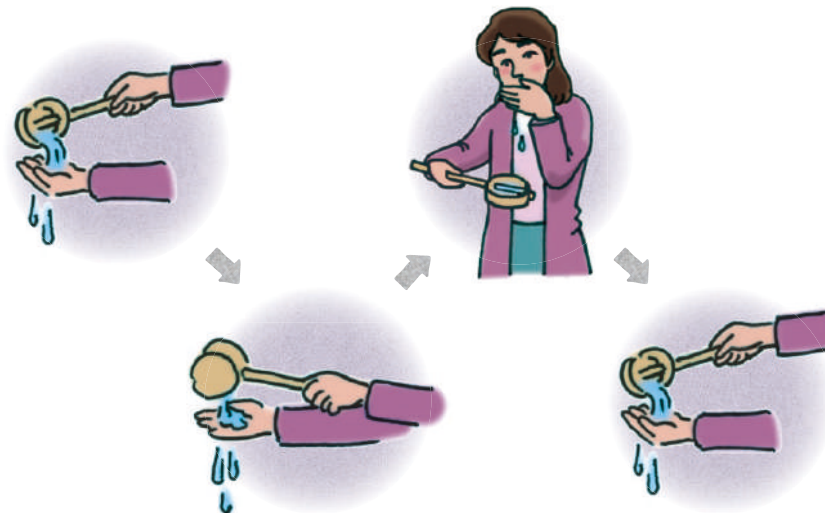
도리이

신사 입구에는 “도리이(鳥居, torii)”라는 기둥문이 있습니다. 도리이는 신사 내부의 신성한 공간과 외부의 일상 세계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 숙여 절을 한 다음에 문을 지나갑니다.



데미즈야

신도에서는 정결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사는 참배하기 전에 물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데미즈야(手水舎, temizuya)”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국자를 들고 왼손을 행cup니다.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국자를 잡고 오른손을 행cup니다. 다음엔 왼손 손바닥에 물을 조금 부어 담고, 그 물로 입을 행cup니다. 국자는 입에 대지 말고, 입을 행cup 물은 우물이 아닌 바닥에 뿔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손을 한 번 더 행cup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국자를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습니다.



고마이누

많은 신사 경내에서 한 쌍의 동물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마이누(狛犬, komainu)”라는 신화 속 동물이며, 사자와 약간 닮았습니다. 일부 신사에서는 그 신사가 모시는 신과 관련된 여우, 늑대 또는 원숭이 등의 동물 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석상은 사악한 힘으로부터 신사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경의를 표하기

신사를 방문하시면 참배를 드린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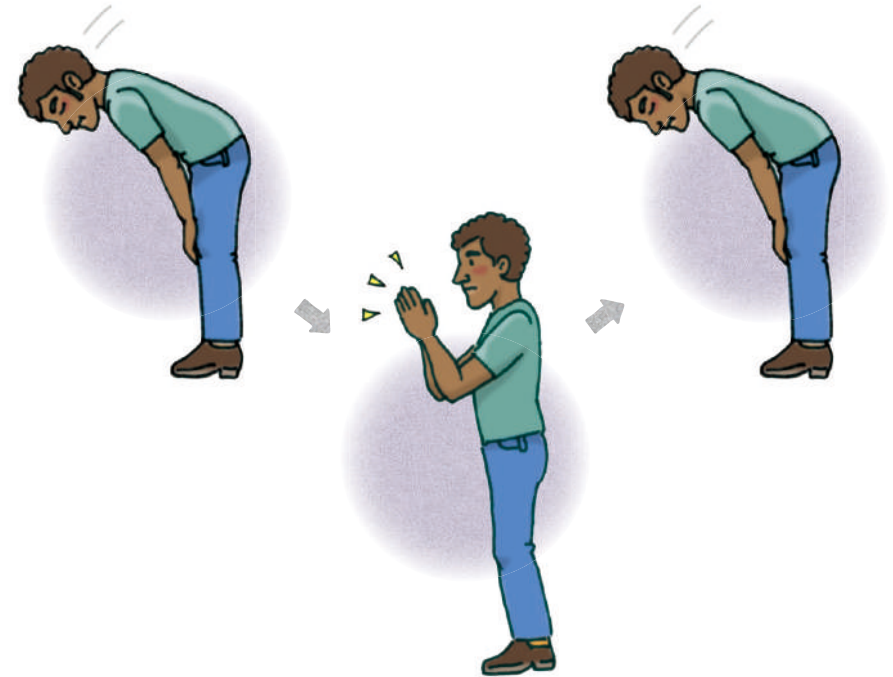
도리이에서 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참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작은 규모의 신사라면 이 건물이 혼텐일 수도 있지만, 큰 신사라면 절을 올리는 “하이텐 (拝殿, haiden)” 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텐이 있는 신사라면 일반적으로 혼텐은 하이텐 뒤에 있습니다. 하이텐에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방문자는 건물 밖에서 참배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앞쪽에 헌금함과 방울끈이 있습니다. 방울 소리는 참배객을 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소액의 동전을 헌물로 바침으로써 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배례

- 하이텐이나 혼텐 건물을 바라보고 똑바로 섭니다.
- 본인이 원한다면 헌금함에 동전을 넣고, 방울이 있다면 끈을 잡고 흔들어 방울을 울립니다.
- 깊이 머리 숙여 두 번 절을 올립니다.
- 다시 똑바로 서서 가슴 앞에 손을 모읍니다.
-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두 번 박수를 칩니다.
- 본인이 원한다면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 깊이 머리 숙여 한 번 절을 올립니다.



✿ 신사와 가까워지기

신에게 뭔가 특별한 소원을 빌고 싶다면, 신사 사무실에 가서 “고키토(ご祈禱, gokito)”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키토란 하이텐에서 열리는 좀 더 공식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있는 신사라면 배전 근처에 신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통 신주들이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고키토 의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고키토 의식을 위해서는 헌물을 바쳐야 합니다. 요즘은 고키토를 준비하는 신주에게 헌물 대신 현금을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금액은 신사나 고키토에 따라 다르며, 신사 직원이 적절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특별한 고키토에 대해 수천 엔 또는 수만 엔을 헌물로 바칩니다.

원칙적으로 고키토를 통해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가 많습니다.

여행 안전

건강

사업 성공

학업 성취

가정의 행복

새로운 인연
(연애, 사업, 출세 등)

많은 일본 가정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처음으로 신사를 방문하는 “하쓰미야마이리(初宮参り, hatsumiyamairi)” 의식 또는 3, 5, 7 세가 되는 아이를 위해 가을에 열리는 “시치고산(7-5-3)” 의식을 위해 주변의 가까운 신사를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신사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이러한 의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에게 바라는 바가 없더라도, 격식을 갖춘 형태로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사에서는 여러분이 신청한 고키토 의식이 열리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신주가 의식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고키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사는 대부분 매우 전통적인 건물이며, 일반적으로 일본 전통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단, 예외가 있으므로 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보통 신사는 고키토 의식 때 깔끔한 옷차림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긴 소매, 긴바지, 긴치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 심하게 부적절하면, 고키토 의식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기도하기

고키토는 마쓰리라는 신사 의식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화 의식

신도는 사람들의 행동과 질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부정이 쌓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하라이(お祓い, oharai)”라는 정화 의식은 모든 신도 의식의 핵심입니다. 정화 의식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마쓰리가 거행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이 정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일본어로 오하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사에서 신주가 짧은 정화 기도문을 낭독한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의식에 참가한 사람들과 헌물 위로 “오누사(御幣, onusa)”라는 막대기를 흔들립니다. 일부 신사는 잎사귀가 있는 상록수 가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주가 정화 의식을 거행하는 동안 여러분은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헌물

의식의 일환으로 신에게 헌물을 바칩니다. 헌물은 의식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동안에 신 앞에 드립니다. 쌀, 술, 떡, 생선, 야채, 과일, 소금, 물 등이 일반적인 헌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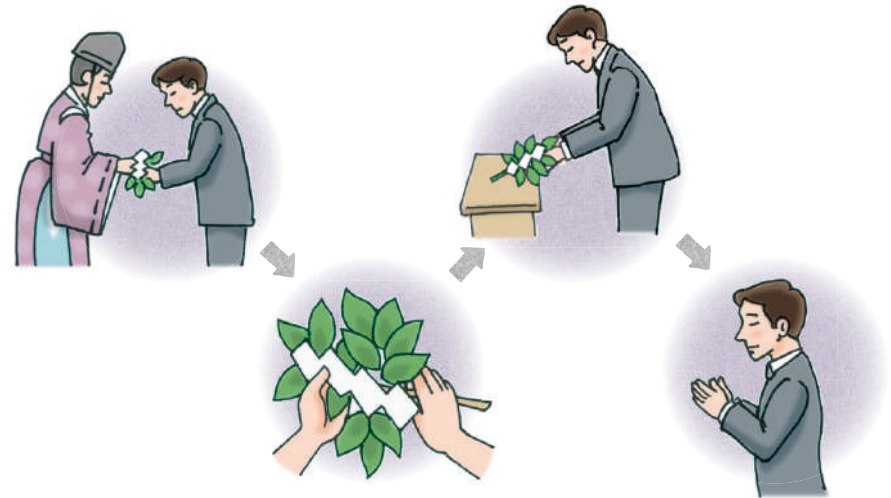
기도문

의식을 주재하는 신주는 신 앞으로 나아가 일본어로 “노리토(祝詞, norito)”라는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이 기도문은 고대 일본어로 적혀 있으며, 신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전달합니다. 기도문이 낭독되는 동안 모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배례

노리토 낭독이 끝나면 모두가 신에게 절하여 예를 표합니다. 절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신사 참배 절차와 동일하지만, 좁게 접은 종이를 묶은 작은 상록수 가지인 “다마구시(玉串, tamagushi)”를 신에게 바치는 과정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먼저 가슴 앞에서 잎사귀가 위를 향하도록 수직으로 잡고, 마음 속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다마구시를 탁자 위에 놓을 때는 줄기가 본인으로부터 먼 쪽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 한 명이 모두를 대신해 다마구시를 올리지만, 일단 다마구시를 올린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절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신성한 춤

규모가 큰 신사에서는 배례 의식 전에 “미코(巫女, miko)”라는 무녀들이 신성한 춤인 “가구라(神楽, kagura)”를 바치기도 합니다. 일부 신사에서 가구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의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신사에는 가구라를 드리는 무녀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집으로 가져가기

신사는 신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물건은 약간의 돈을 주고 사야 하며, 대부분의 신사는 적절한 요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마모리

“오마모리(御守, omamori)” 도 신령이 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작은 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신에게 기원한 내용과 일치하는 오마모리를 선택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오마모리는 고키토 의식과 동일한 내용의 기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신사에서 고키토 의식을 드렸다면, 대부분 고키토가 끝난 다음에, 기원 내용에 알맞은 오마모리를 드립니다.

오마모리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화려하게 수를 놓은 작은 주머니 모양이 많습니다. 주머니에는 신성한 나무판이 들어 있습니다. 주머니를 열거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오마모리는 신의 은총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알맞은 선물입니다.



오후다

“오후다(御札, ofuda)” 는 집에서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일종의 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후다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후다는 신 또는 신사의 이름이 적힌 종이며, 크기도 다양합니다.



오미쿠지

신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오미쿠지(おみくじ, omikuji)” 라는 운세 쪽지를 뽑아 길흉을 점칩니다. 일부 신사에서는 오미쿠지에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도 제공합니다.



에마

“에마(絵馬, ema)” 란 소원을 적어 신에게 드릴 때 사용하는 작은 나무판입니다. 한쪽에는 그림이 있고 반대쪽에는 글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소원을 적고 신사 경내에 에마를 걸어둡니다. 대부분의 신사에는 펜이 준비돼 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는 다른 물건과 달리, 보통 에마는 신사에 놓고 갑니다.



고슈인

많은 신사에서 여러분이 방문하고 참배했다는 기록으로서 “(御朱印, goshuin)” 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슈인이란 종이에 붉은색 도장을 찍은 것으로, 대개 검정색 붓글씨로 신사 이름과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신사마다 붉은색 도장이 다르고 붓글씨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본사람들은 “고슈인초(御朱印帳, goshuincho)” 라는 특별한 책자에 고슈인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고슈인은 신사를 방문한 기록이므로 선물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